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7월 4일(목) 총 3매		세계 10대 도시 인천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과	담당자	• 영유아정책팀장 권혜경 ☎440-2891 • 담당자 강범석 ☎440-2893 • 담당자 김지인 ☎440-341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아동 비율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 , 199개로 늘어나
- 신규 16개 포함 118개소 선정 ... 공보육 이용률 40.3%→45%로 상승 기대 -
- 올 하반기.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 신규 지정 계획도 -

인천광역시는 신규로 선정된 16곳을 포함해 인천형 어린이집 118개소 선정을 완료해 총 199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천형 어린이집이 총 199개소로 늘어나면서 인천시 공보육 이용률*은 2023년 40.3%에서 2024년 말 약 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보육 이용률: 전체 보육아동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공보육 어린이집 중 하나인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의 경우 1:3→1:2, 1세반 1:5→1:4로 정부 기준보다 낮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시는 지난 3월 인천형 어린이집 공모를 시작으로 각 구의 1차 심사(현장 실사 및 서류검토)와 시의 2차 심사(서류 재검토),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118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 118개소 중 유효기간 만료로 재선정된 곳은 102개소, 신규 선정은 16개소다. 당초 신규 선정 목표는 12개소였으나, 3월 공고 이후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 수를 감안 4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인천형 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선정 후 3년이며, 최초 1회에 한해 환경개선비와 개소당 연평균 3,3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및 공보육 이용률 확대는 최근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천형·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보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늘려 보육 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50개소를 재지정하고, 오는 9월에는 20개소를 신규 지정해 149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선발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사진〉 인천형 어린이집 현판

